

루카치의 미학 기초 이론

스즈미야_하루히

본명: Löwinger György Bernát (뢰빙게르 죄르지 베르나트)
출생: 1885년 4월 1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부다페스트
사망: 1971년 6월 4일, 헝가리 인민공화국 부다페스트
학위: 헝가리 왕립 부다페스트 대학교 철학 박사 (1909)
학과: 대륙 철학 (신칸트주의 → 헤겔-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연구 분야: 철학, 미학, 사학, 정치학
영향을 받은 인물: 마르크스, 레닌, 칸트, 키에르케고르, 루셈부르크, 베버, 짐멜 등
영향을 준 인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벤야민, 사르트르 등

I. 자본주의와 예술의 관계

I-I. 자본주의의 예술 적대성

기본 테제 “자본주의는 예술 적대성을 가진다”

- 자본주의의 분업성: 분업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분업의 긍정적인 면모 – 분업은 인간의 전체성 **Ganzheit**을 확장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특성, 능력을 인간 속에서 일깨움. 또한, 인간이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 자연스러운 과정임 (E. 뒤르케임의 분업론과 일부 동일)
진보의 모순성: 그러한 긍정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분업은 인간의 예술을 파괴하였음.
- 전체로서 인간을 풍부하게 만들지언정, 개개로서의 인간을 하찮게 만들. (인간소외론)
- 거시성을 갖춰야 할 예술을, 일면적이고 편협하게 만들. 총체적, 포괄적으로 보아야 할 예술의 대상을 “직접적인 현시 기법의 아틀리에적 문제”로 보게 함. [문학에 울타리를 치는 것 – 즉 예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정짓는다는 것임]
- 소설, 문예비평 등 여러 형식을 통해 자신의 지배적 실존 방식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맡는 작가는 일개 글쓰기 전문가로 전락함. 아틀리에적 문제에 초점을 둔 이러한 전문가들은 자본주의적 분업을 재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것.
{인용 / 익숙함을 센세이션으로 치장하고, 무더짐을 도취를 통해 흥밋거리로 만들기 –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는 이 과정을 촉진하고 강화하며, 흥분과 위안으로서의 작가는 이러한 분업의 산물을 재생산한다 }
- 문화와 예술의 “보편적 상품화”: 문화적인 풍요로움마저 상품으로 전락함 (Th.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론”과 일부 동일) / 인간의 주관성을 상품화한다고 보았음 - “체현의 매춘”으로, 예술 작품에서 개인의 기법, 기예적 독특성, 표현 수단, 소재 선택 등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새로움 따위를 강조하는 경향에 몰두하게 되는 것임 (상품성을 위하여) 궤변에 가득 찬 문학마저 “새로운” 상품으로서 판매됨.

● 자본주의의 물화 Verdinglichung

기본 테제: 다른 체제에 비하여, 자본주의에서는 상품 구조가 지배적 구조가 됨.

현실 **wirklich**의 삶을 지우고, 실제의 세계와 다르게 현상함. 상품, 화물, 가격 등 “상품화” “사물화”된 범주들이 현실의 자리를 채우게 됨 -> 추상적인 사회의 힘들로 현상, 작동함.

-> 인간의 현실적 존재를 탐구하는 문학 및 예술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함: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예술에는 더 불리한 조건이 성립됨.

I-II. 자본주의 시대에서 예술의 전망 인식

카를 마르크스에게서 일부 계승하였으며, 동시에 헤겔과 독일의 낭만주의 사조가 근대 사회에서 쇠락한 예술의 지위를 한탄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음

-> 헤겔과의 차이: 헤겔은 “정신”이 고대 그리스 이후 예술을 떠나 철학으로 옮겨갔으며, 따라서 정신이 예술을 초월한 것이므로 그리스 시대 이후 예술의 전성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임을 주장함 (비판론)

vs 루카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이라는 대상이 예술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하나, 그러한 자본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순수미술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음 (낙관론)

-> 루카치의 미학 작업: 순수 미술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데에 있음.

: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방법

- 지적 도덕적 도야: 사회는 고정된 동질적 구조가 아닌 역동적 모순의 통일체이자 재생산 과정임: 아무리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삶에 생기는 파열구, 즉 “사이 세계들” **Intermundien**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음. 개개인은 그러한 사이 세계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적 장막을 뚫고 나갈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임.

: 예술에 적대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진정한 예술 작품이 창작될 수 있는 근거임

II. 휴머니즘과 예술의 관계

루카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조” “계급”에 비하여 “인본주의성”: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구조와 계급적인 마르크시즘의 담론에 비하여 주체적인 인간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 휴머니즘적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했다 볼 수 있음.

▶ 요나스 (H. Jonas) 등의 비판: 루카치의 인본주의는 인간을 “자연을 넘어서는 궁극적 이상체이자 이데아”로 뭉으로 인하여 인간 우월주의적이며, 자연 윤리에 한계를 보임.

▶ 알튀세르 (L. Althusser)의 비판: 인간은 체제, 계급, 경제 구조 등 “구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루카치는 계급 사회를 “구조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설정하고, 개개인들의 한정된 주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걸 넘어 근본으로 착각하고 있음.

- 루카치에 대한 변호 / 마르크스의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에 대한 해석: 루카치는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실존주의적 의미의) 보편적 인간성, 따뜻함, 애정 등이 아니라 사회 속의 구체적인 형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보았음

역사적 주체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경배: 1930년대 이후 루카치의 이론에 속함.

{인용 / 휴머니즘의 궁극적 승리를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보장하는저 민중적 힘과 생생한 연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예술이 이 데올로기 전반의 쇠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예술 - 휴머니즘의 연결: 루카치에 있어, 이러한 이상적 존재로서의 휴머니즘은 예술과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이자 예술의 존재 의미.

- 휴머니즘은 문학과 예술의 본질적, 내재적 성질. 진정한 문학, 예술은 예술가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 없이, 비인간성과 비인간적 경향에 맞서 인간의 온전성을 옹호하고, 인간의 인간화에 기여함. (그때 그때 미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거시적, 거대담론적으로 휴머니즘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임)

● 휴머니즘적 예술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방법

1. 내적 동력성. 변화와 변화의 지속을 재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술이 자본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산됨. (예술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본성을 끊임 없이 조명함으로써 인하여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수 있다는 뜻)

{인용 / 문학은 궁극적 차원에서만 시대의 사회적 연관 관계를 건드리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는 없는 “개별적 인간과 개별적 운명들의 헌시”이다.}

2. 휴머니즘성: 예술과 문학은 그 존재 근거로서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추구하는 바, 자본주의의 반인간성과 반예술성과 충돌함. - >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은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에 대립하며, 이는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근본적 동력으로 작용함.

공산주의와 휴머니즘의 관계: 루카치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현재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이자 궁극의 지평”이고 “인간화의 완성”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술의 목표이고 그것을 공산주의(맑씨즘)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본 것임.

III. 반영론과 미메시스

반영론적 관점은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나, 그것의 본질적 한계점 (소련 공식 철학에서의 협소함과 왜곡)을 인식, 수정하려 했음 ->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음.

● 미메시스: 기존 소비에트 맑스-레닌주의 철학에서 반영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3~4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임.

: <루카치적 반영론>과 대등어로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반영을 내포하는 모방 nachahmung을 뜻하는 말임. “현실의 어떠한 현상의 반영을 고유한 실천으로 옮기기”라는 의미. (현실 의식을 직접 대상화한다는 것은 아님 — 그 자체로 현실에 능동적, 주체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나, 객관적 현실을 인식하는 것.)

- 미메시스는 모든 고등 유기체의 기본 사실임

- 인간에 있어서는, 생활 뿐만 아니라 “예술”의 기본 사실이기도 함 - 즉 예술은 객관적 현실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여 반영하는 행동이라는 것. 여기서 인간은 대상적 활동 및 실천의 주체로 작용함.

- 과학적 반영 vs 미적 반영: 과학적 반영은 모든 인간적 감각, 감정, 정신적 한계에서 벗어나고, 주체적 의식과 무관히 객체를 묘사하려고 하므로 탈인간연관적 반영(desanthropomorphisierend)인 반면, 미적 묘사는 인간의 세계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세계를 주체적으로 묘사하는 점을 지향하므로 인간연관적 반영(anthropomorphisierend)임 : 미학은 그러한 고로 kein Objekt ohne Subjekt, 즉 “주체 없이는 객체가 없는” 학문이라고 말함.

-> 루카치의 후기 미학) 예술은 대상(객관)을 의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상 의식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의식이 이루어지는 단계임. 그러므로 예술 작품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주체성을 고양하는 데에 있음.

- 예술적 형식은 체험을 유발하고, 감정을 환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한 체험 및 감정의 환기 과정에서, 예술을 관찰하는 사람은 예술이 담고 있는 사회적, 역사적인 맥락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속에 위치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대상인지 재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자의식을 일깨우게 됨.

: 즉, 인간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휴머니즘은 미메시스로만 가능한 것임.

IV. 리얼리즘

루카치가 인식한 193~50년대 유럽 사회: 기본적으로는 Th. 아도르노와 동일함 (경제와 사회가 야기하는 소외가 정신적, 제도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름)

-> 아도르노와의 차이점: 아도르노는 비판론을 제기, 루카치는 낙관론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인간 개개인이 그러한 소외에 맞서 싸울 여지가 언제나 존재함을 주장

: 이러한 체제 개인이 맞서기 위해서 리얼리즘적인 예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루카치의 리얼리즘 - 1930년대 중반 이후, 리얼리즘을 “참다운 문학 자세, 문학 이념, 창작 방법, 특정한 양식” 등으로 규정.

● 후기 미학에서의 리얼리즘 위상 변화: 루카치의 후기 미학에서는 리얼리즘이 “대상을 형상화하는 예술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본래적 속성, 예술의 본질)으로 변함

- 그럼에도 루카치가 리얼리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리얼리즘적인 미술을 더욱 리얼리즘적으로 만드는 것”, “리얼리즘의 리얼리즘화”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후기 철학에서 위대한 예술은 심화된 리얼리즘적이지만, 심화된 리얼리즘이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게 됨 (이미 기본적인 리얼리즘이 예술 속에 내포되어있으므로).

: 루카치가 규정한 “리얼리즘적 미학 추구로서의 저항”: 그때 그때 존재하는 사회적 상태 및 경향과의 예술을 구체적으로 연관시키고, 그 시대에 있어 중요한 화두를 거시적인 인간 역사 발전과 연관시 생생하게 제시하는 문학 존재의 필요성을 의미 ->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휴머니즘성을 통한 당대 세대의 극복을 추구한 것임.

부록 - 파스테르나크 (G. Pasternack)가 정리 및 분류한, 루카치가 여러 저작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예술의 본질성

1) 원리로서의 탈 실용화: 통일적이고 직접적인 생활 연관의 구조적 중단

2) 총체성: 전체성으로의 지향을 지닌 작품세계의 구조적 완결성

3) 원리로서의 리얼리즘: 미메시스적 형성물의 구성과 현실 인상의 환기에서 이루어지는 미메시스적 재생산과 현실 경험의 연관화

4) 원리로서의 특수성: 감각적으로 명백한 것의 개별 보편화 가능성

5) 자의식화: 인간유의 자의의식으로서의 주체성의 탈개별화